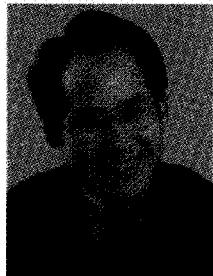


말과 행동 그리고 성공



민영욱 / 한국스피치&리더십센터 원장

www.speech114.co.kr
성공하는 사람들의 화술테크닉저자
02-7373-477

지 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전 세계 분쟁 지역의 갈등 해소에 노력한 업적으로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임 중 가장 인기 없던 대통령’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란 그에 대한 그간의 평가가 바뀌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통해 소중한 정신적 가등이 되어준 여선생에게 두고두고 감사를 해서 대통령 취임연설에서까지 그 여선생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나라의 힘은 내면의 정신적인 것입니다. 나의 고교시절의 선생님 줄리아 콜만은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나가야 하지만 불변의 도의(道義)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생활 전반은 날로 풍요로워만 가는데 반대로 기존의 것이던 예의, 도덕은 점차 망각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형식적이 되어 가고, 오고가는 말도 일방적이 되어 평행선만 달린다. 나는 직업상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예절, 바꾸어 말하면 도의를 가지고 말을 하라고 답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말에서 시작되고 말로 끝난다. 대화 중에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배

첫째,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사고를 가지고 그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고 사랑과 용기를 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여 나온다. 또한 서로 대화하는 동안 그 밑바닥에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의 교류가 흐른다.

평소 싫어 하는 사람에게 부득이 어떤 일에 대하여 설명해야만 되는 경우에, 정성스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아예 골탕을 먹이는 사람도 있다. 대화의 질이 곧 인간관계의 질이며 삶의 질인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 가정과 직장이든 사회 어디에서든지 기본적인 화법 3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사고를 가지고 상대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한다. 말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낸다. 입이 있다고 해서 마구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인격자이길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동안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보고 입장을 정리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보다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잘 듣는데서 잘 말 할 수 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세 마디 듣고 한 마디 말하며, ‘내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며 상대의 말하는 동기와 이유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맞장구를 치는 등 상대와 상대의 말에 관심을 표명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너스로 호감을 살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의도한 바를

이룰 수가 있다.

셋째,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믿음을 주고 사랑과 용기를 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넌 안돼,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비관적·부정적 환경을 만들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게하고 용기를 꺾게 만든다. 가뜩이나 힘든 세상이 아닌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활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화(萬禍) 중에 가장 쉽게 범할 수 있고 가장 깊은 상처로 남는 것이 설화(舌禍)이다. 설화로 빚어지는 것에는 인간관계의 파국, 사회적 명성의 실추 등이다.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더불어 산다는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말은 문화이며 존재이고 행동의 씨앗, 운명의 씨앗이 된다. 독서에서 피를 얻고 대화에서 살을 얻어 좋은 인간관계, 멋진 인생을 펼쳐갑시다. **PPFK**